



2024년 12월

소그룹 참가자용



너희가

**잡을 서로 지라**

갈6:2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기초】**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없다면 지난 말씀 이야기처럼 ‘**줘어짜서 만들어**’ 봅시다.
- ② **【고급】**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은 생각이나 성경구절 등) 있다면 나눠봅시다.

▶ **오늘의 성경 읽기** \_ 빌립보서 4장 11-13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성경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이야기**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소설가 백영옥 씨가 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은 11세의 고아 소녀 빨강머리 앤이 남긴 주옥같은 명언을 되짚어 보는 책이다. 만화에 나오는 대사이지만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감동과 도전이 담겨있다.

빨강머리 앤이 어느 날 지긋지긋한 고아원을 벗어나게 되었다. 어느 집에 입양이 되기로 한 것이다. 드디어 고아원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 집에서는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오니까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기 싫은 고아원을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낙심된 상황에서 그 어린 앤이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 이런 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지금 앤은 도망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그 길에서 스쳐 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어린 앤이 가진 긍정적인 삶의 태도였다. 앤의 감동적인 말들을 몇 가지 더 인용해보겠다.

“이 길포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이런 말도 있다.

“저는 원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또 이런 말도 했다.

“저도, 오늘 아침은 절망의 구렁렁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렁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린아이의 너무나 주옥같은 말들에 많이 도전이 된다.

저자 백영옥 씨는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패배자가 된 느낌으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는데, 빨강머리 앤의 대사가 들린 것이다. 그때 귀에 들어온 대사가 이것이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꼭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기처럼 들렸다.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

“스톱 버튼! 눈물이 핑. 앤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그녀는 빨강머리 앤이 한 말을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다. 그분의 일어섬은 다름 아닌 이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어린 아이의 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 ▶ 위 빨강머리 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아래 글귀와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 「자족 연습」 존 맥아더

잘못된 ( )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잘못 (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아래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빌립보서 4:11

우리는 ( )이라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에 잘못 (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핍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 )하기를 배웠노니” (빌4:11)

▶ in - 말씀 안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생활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족을 ( )하라”

빌립보서 4장 12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 ) … **빌립보서 4:12**

---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학교나 학원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면서 ‘**안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비천과 풍부 모두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승화시켜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빌립보서 4:6**

---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 )의 재료로 그리고 ( )의 재료로 바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WBC라는 주석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하여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부요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셨습니다.” … **WBC 주석**

---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

---

형통한 날에는 ( ) 곤고한 날에는 ( )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전도서 7:14**

---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는 관점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런 일들을 도구로 주셨다고 수용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이며 반응입니다.

▶ out - 우리의 삶으로

---

( )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빌립보서 4:12

---

이 말씀이 빨강머리 앤과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다,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간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게 힘을 주신다.’

---

끝으로 너희가 ( ) 강건하여지고  
... 빌립보서 4:12

---

‘강건하여지고’가 가장 눈에 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건해진다는 결과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안에서’와 ‘그 분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눔1)**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감으로 외로이 눈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나눔2)**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고 나눠봅시다.

###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기초】**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없다면 지난 말씀 이야기처럼 ‘**줘어짜서 만들어**’ 봅시다.
- ② **【고급】**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은 생각이나 성경구절 등) 있다면 나눠봅시다.

### ▶ 오늘의 성경 읽기 \_ 다니엘 6장 3-10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 성경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이야기

####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자유

유대계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 한 가지 자유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사실 이것은 빅터 프랭클 본인의 이야기이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동료가 차례로 가스실로 불려가서 죽음을 맞는 현실인데,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는가? 그 절망적인 두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많은 유대인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더라는 것이다.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엄습했는지, 그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 이미 다 죽은 상태였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불태우기 위해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감춰두고는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고 한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니 상처가 나고 피도 났지만, 매일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용소에서 절망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 독일 나치가 자신의 몸을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는 있었지만, 희망을 향한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 태도를 빼앗기지 않으니,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 위 이야기를 생각하며, 아래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

<sup>11</sup>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sup>12</sup>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sup>13</sup>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빌립보서 4:11-13**

---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즉 궁핍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을 때라도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정말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 ▶ in - 말씀 안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

<sup>6</sup>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sup>7</sup>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 **다니엘 1:6-7**

---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 )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 )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초라한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자괴감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원망하기 쉬운 상황에 (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총리로 임명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 왕조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왕조를 뛰어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 1) 먼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 )이 있었습니다.
- 2)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 )하며 그의 하나님께 ( )하였더라 ... **다니엘 6:10**

---

노년의 다니엘은 시기와 모함을 당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 1)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 2)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 굴에 끌려가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갈래 길에서 후자를 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오릅니다.

---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 한 가지 자유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 빅터 프랭클

---

그러므로 감사는 ( )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악한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율가미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불안 대신에 감사를 ( )했기 때문입니다.

### ▶ out - 우리의 삶으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문제의 10퍼센트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퍼센트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 **찰스 스윈돌**

---

이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봅시다.

---

다니엘은 ( )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 **다니엘 1:8**

---

**나눔1)**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환경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정하였는지, 혹은 무엇을 정해야 할지 나눠보도록 합시다.

**나눔2)**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다니엘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미리 드린 감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받기 전에 하는 감사’**와 **‘응답받은 후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 하는 감사’는 ‘응답받은 후에 하는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고, 후자는 믿음 없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합시다.